

지역 소식통

완주군 통합방위협 국방부 장관 표창

완주군 통합방위협이 이달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과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의 핵도발과 사드배치로 인한 대중국관계의 악화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완주군과 106연대를 포함해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완주군통합방위협 의회는 지역방위와 안보관 확립을 위해 민·관·군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안보 공동체로 결성됐다.

특히 그동안 주민과 학생대상 안보교육과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원, 여성예비군 창설 등에 적극 협력하며, 애항심에 기반한 주민 안보의식 강화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원주=이종복기자



지난해 45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한 완주 로컬푸드가 올해 연 매출액 6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주로컬푸드 매출 450억 육박

2년 만에 매출액 100억원 가까이 상승... "600억원 정도 증가할 듯"

지난해 45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한 완주 로컬푸드가 올해 연 매출액 6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상반기 내에 전북 혁신도시에 직매장 뿐만 아니라, 농가 레스토랑, 가공체험장까지 갖춘 농식품마켓 개장에 따른 것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역 농협과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전주와 완주에 운영하고 있는 12개 직매장의 매출액은 447억원에 달했다.

353억원을 기록한 지난 2014년과 비

교할 때, 2년 만에 매출액이 100억원 가까이 경증 된 것이다.

군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17년의 경우 직매장의 매출액이 600억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매장이 첫 선을 보인 2012년 이후 매년 크기는 100억원, 작게는 38억원의 매출증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올 6월경 정식 개장하는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이 연 매출액 600억원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은 직매장과 함께 농가 레스토랑, 가공체험장까지

갖춰 2만5000여명의 전북 혁신도시 소비자는 물론, 인근 전주 및 완주, 김제 소비자에게까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은 지난해 10월 임시개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4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마켓이 올해 600억원 시대를 열면, 직매장 농산물 납품농가의 확대 및 소득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제시의회,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0일 제 20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오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첫 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4명의 원이 공동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일 정으로는 11일 김제시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12일에서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김영자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채택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은 현

행 3%로 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유입기준인 0.9%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병기 및 무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알권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중 예정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김제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과, 봄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오는 5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청원극기훈련 실시

김제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100여명은 지난 8일 직인 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역량 결집을 위해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서 청원극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청원극기훈련은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AI와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및 방역초소근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 해소와 사기 앙양 및 부서 간 화합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6월까지 추진 되는데, 기획감사실, 상하수도과, 요촌동, 교철동 등 4개 부서가 이번 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새만금 방조제에 도착 후 2호 방조

제를 따라 약2km 정도를 걷고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에 있는 33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건설이 한창인 통서2축 간선도로와 방수제 및 신항만 건설현장을 전방에서 둘러봄으로써 김제시 땅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새만금방조제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모악산으로 이동하여 금산사 경내까지 걸으며 봄의 숲과 사람이 주는 따스함과 편안함 속에서 그동안 업무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김제시 체육청소년과(과장 안상일) 소속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5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덕안정보고등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학교별 선착순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교육은 주입식 예방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교육의 집중력을 높여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교폭력 안정화에 목적을 두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14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15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김제시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저축과 보험"이라는 주제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오는 14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15일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한다.

희망키움통장I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3년 동안 적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본인 저축액의 최대 6배를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II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매월 본인 저축(10만원) 시 근로소득 장려금(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에 도입됐다. 현재 김제시 희망키움통장I 가입자는 36명이며, 희망키움통장II는 81명이다.

내일키움통장 역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지원근로사업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축액은 5만원, 1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내 일반시장에 취·창업 및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본인 저축금액 1:1 비율로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받고 시장진입형은

본인 저축금액 1:1 비율로, 사회서비스형은 1:0.5와 1:0.3 비율로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시장진입형 참여자를 기준으로 10만원씩 매달 저축하여 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15만원을 매달 지원받으면 최대 1,6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김제시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수는 총 53명이다.

이번 자립역량강화교육은 국민연금공단 남미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저축과 보험'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자립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재무설계에서부터 저축, 보험, 부채, 신용관리 등 꼭 알아야 할 경제지식들을 가르쳐주고 가정의 건전한 재정 상태는 물론 원활한 사회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한 관광사 인센티브 지원

완주군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일 군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일반여행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다.

그리고 수학여행은 30명 이상을 모객한 경우이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1인당 4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완주군 유류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체험 등을 실시하고,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여름행이나 가을까?' (Summer or Autumn?) featuring scenic views of the region. It includes text about '관촌 사선대' (Gwanchon Sasondae) and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Okjeongho Sunwando Drive Road). The ad is for '임실군' (Imseong-gun) and promotes tourism in the area.